

WSJ “北 비핵화 두고 한미 분열 확대”

美 “제재 지속” vs 韓 “고립 완화”

방법론 차이로 양국 갈등 깊어져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열이 커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보도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려 하지만 한국은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줄이려 한다면서 위와 같이 전했다.

신문은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맹국인 두 나라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취할 조치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남북한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점,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점 등을 꼽은 뒤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믿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한 긴장완화 속도가 북미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들에게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을 화나게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로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불허한 것을 지적하고 이 조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WSJ은 두 동맹이 상충하는 접근을 하는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열이 커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강경화 외교장관(우)과 면담을 갖는 미국무장관 폼페이오(좌). **뉴시스**

이유가 양국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여준 뒤 북한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WSJ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을 양국이 충돌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다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되자 중단했으나 며칠 안돼서 한국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사무소를 개설했다면서, 이와 관련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당국자들에게 사석에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시스**

美 연준 금리 5차례 추가 인상 전망

골드만삭스 분석 “경제성장속도 진정 필요”

미 연준은 2019년 말까지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두 차례 더 많은 총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18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이 전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미 경제성장 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좀더 이른 시점에 금융 여건의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한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현재 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뉴욕 증시의 폭락과 관련해 “연준이 제정신이 아니다(crazy)”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자신의 전망을 지키며 정치인이 말하는 것에 일일이 영향받지 않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니 윌런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도 연준을 옹호하고 있다.

앨런 전 의장은 지난 15일 “연준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은 금융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이어 “미국 경제는 현재 양호한 상태이며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자신은 파월 의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 역시 18일 “현재 미국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타이프하다”며 “이는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파월 의장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린스펀은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비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뭐라 하든 귀머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카슈끄지 사태’, 최대 수혜자는 이란?

美-사우디 관계 악화일로... 정치·경제적 손실 이어질 듯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실종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제 사회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란이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 채담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뒷받침할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카슈끄지 사건으로 인해 악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란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외교정책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1월 이란 원유 제재 조치가 취해질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카슈끄지 사태로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이란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사우디는 올 초 트럼프 대통령에 이란 원유 제재로부터 나올 공급량 부족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카슈끄지 사태로 미국이 사우디를 처벌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일로 미국과 사우디간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란은 원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CNBC는 전했다. **뉴시스**

스타벅스 매출 부진한 83개 직영 매장 매각

스타벅스가 몇 해 동안 매출이 부진한 유럽의 매장과 지사들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시에틀에 본사를 둔 이 커피 전문 체인점 회사는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에 있는 83개의 회사 직영 매장들을 오랜 파트너였던 식품유통업체 엘시(Alse)에게 매각한다.

엘시는 이 외에도 해당국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영업점 177곳 역시 인수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에 본사가 있는 엘시는 이미 멕시코와 남미 지역에서 900개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유럽 매장의 정리는 스타벅스사가 2016년 독일내의 매장들을 매각할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스타벅스사는 또 암스테르담의 지사 사무실들도 폐쇄하고 런던에 있는 유럽 본부도 합병해서 정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86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들은 런던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네델란드에 있는 커피 원두 로스팅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직원 80명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관광지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가 지난 130년 이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한 것과 관련해 시 당국에 벌금을 납부한다. 사진은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 **뉴시스**

성가족 성당 불법 공사로 벌금 납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관광지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가 지난 130년 이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한 것과 관련해 시 당국에 벌금을 납부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측은 시 당국에 4천 100만 달러(약 466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130년 이상 무허가 건축 진행 10년 걸쳐 4천100만 달러 지불

건축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가 디자인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1882년 시작된 건축 공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은 이러한 합의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4천100만 달러를 바르셀로나시에 납부하게 된다. 이 돈은 대중교통을 포함해 성당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성당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약 450만명이 방문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축 공사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뉴시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운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다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

좋은 칩 찾아주~오

사랑방 부동산 新 아파트 단지정보

국내 최초 아파트 드론영상 제공
하늘에서 바라본 단지 주변 교통, 녹지, 편의시설을 한눈에

업계 최초 3D 입체 평면도
공급했던 아파트 내부구조 입체화면으로 속시원하게~

그래픽으로 보는 단지정보
입주년도, 주차구, 내진설계 단지시설을 그래픽으로 쉽게 확인

총 916대 (가구별 1,2대)

* 신문에 찾으신 부동산의 상세정보는 PC나 모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보통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운반 가능 **062)522-2424** 전남 전 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통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손시 재장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